

사후 사유재산 출연처 문중사찰로 확대 시행

총무원, ‘입법미비 사항’ 중회서 보완키로

갑작스럽게 입적할 경우 종단 밖으로 삼보장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승려사유재산의 종단출연에 관한 령’이 중법을 보완해 시행된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답스님과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대한 종단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은 “당초 공고된 승려 분한신고 기간에는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유언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3월 임시중회에서 시행령의 모범인 승려법을 보완 개정된 후에 관련 서류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무부장 영답스님과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일부 스님들이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스님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입적할 경우(스님들의) 사유재산이 속가나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령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총무원이 공포한 이번 령은 지난

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을 근거로 제정한 것이며, 후속조치로 승려분한신고기간에 유언장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로 했었다.

총무부장 영답스님은 “시행령의 모범(母法)인 승려법 제30조의 2항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종단에 귀속한다’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제적 본사와 문중 등에도 귀속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부장 스님은 “삼보장재가 종단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3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분한신고기간에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한해 접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실장 원담스님도 “개정된 승려법에 따라 (집행부인) 총무원이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따뜻히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종단의 건강한 풍토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출가해 승려 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재정이 있다면 마땅히 삼보에 회향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과 관련 발표한 입장을 통해 “승가공동체의 기본은 공유의 정신”이라면서 종단에서 시행하는 입적시 사유재산 출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본 제도는 생존 당시에 스님들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으로 증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갑작스러운 입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상속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종단 출연 재원 활용방안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출가정신에 부합하도록 승려복지와 교육의 재원으로 적당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다”면서 “승가공동체의 무소유 정신을 재확인하고, 종단의 수행종풍을 진작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무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스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구본사나 선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2·3면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지난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0학년도 동국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련스님, 상임이사 성관스님(앞줄 왼쪽부터)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사찰음식 대중화, 종단이 앞장선다

‘발우공양 정신’ 선양...6개년 계획 추진

건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웰빙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종단 차원에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한브랜드’ 개발이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한식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춘 행보여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사찰음식 대중화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지난해 5월 사찰음식조사단 설립과 함께 차분히 준비해왔던 문화

부는 올해 사업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의 조사·연구 활동과 함께 사업 및 홍보, 콘텐츠 개발이라는 3대 사업 분야로 구분해 사찰음식을 대중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게 된다.

올해 이뤄지는 사찰음식 대중화 사업은 △조사·연구를 통한 조리법 표준화와 계량화 △사찰음식 교육 시스템 구축 △사찰음식 고유브랜드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사찰음식이 단순히 ‘좋은 먹을거리’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발우공양’

등 음식에 대한 불교적 정신문화까지 선양하기 위한 노력도 비중 있게 추진된다. ▶관련기사 5면

총 6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찰음식 대중화 사업은 중국적으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부장 효탄스님은 “사찰음식이 사회적 트렌드와 부합하면서 불교적 정신과는 무관하게 상업화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많아졌다”며 “종단 내 사찰음식 문화의 대중화를 주도하는 스님들과 힘을 모아 자칫 왜곡되기 쉬운 사찰음식 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보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東大 발전위해 아낌없이 지원”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0학년도 동국대학교 입학식에 참석, 종립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조계종에서는 동국대학교의 발전과 중흥이 조계종과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며 “동국대학교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으며, 젊고 건강하면서도 그 의지력이 약하고 게으른 사람은 결코 지혜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서 신입생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도 “신입생을 환영하는 자리에 함께 해 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께 감사하다”면서 “신입생들이 동국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동국 100년을 새롭게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는 지난 19일 201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졸업식)을 거행했다. 박사 85명, 석사 532명, 학사 1814명 등 총 2431명이 이날 졸업식에서 학위를 받았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금강산 성지순례 지속 추진”

조계종, 통일부 불허 방침 ‘유감’

22일, 추후 실무접촉 입장 밝혀

지난 17일 통일부가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를 위한 남북 불교계의 실무접촉을 불허한 가운데, 조계종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금강산 순례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2일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9일 통일부의 방북 불허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앞으로도 통일부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금강산 성지순례 사업을 추진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

명히 했다. 조계종의 항의공문에 대해 통일부는 회신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계사 성지순례와 함께 조계종은 지난 1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방북 당시 조계종과 조불련이 합의한 남북공동법회, 문화재 발굴복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며, 이번 방북 불허로 무산된 남북 불교계의 실무접촉 역시 추후 일정을 잡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TV 7000만원

아이티 성금 전달

아름다운 동행 28일 마감

불교TV(회장 성우스님)가 지난 22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아이티 구호성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아이티 지진 발생 이후 3주간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기금에 불교TV 임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금액이다. 한편 현재(2월23일)까지 아름다운동행에 통해 모금된 성금은 총 6억3543만9750원으로 집계됐으며,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모금활동을 오는 28일로 회향할 예정이다.

▶모금 명단 4면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멤버십 지정 의료기관 협약”

포교원, 신도등록 확대·조직화 사업 ‘가속’

제33대 조계종 집행부가 ‘신도교육 및 조직화’를 11대 핵심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이 신도 멤버십 지정 의료기관 협약을 통해 신도등록 확대 및 신도조직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포교원은 오는 28일 오전10시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양의료재단 남양주 한양병원과 멤버십 협약을 갖

는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협약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 봉선사 주지 인묵스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4개년 내에 ‘100만 신도 등록, 10만 교육훈련 신도, 1만 전문인력 신도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포교원이 전개하고 있는 신도교육 및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신도 멤버십 체계를

마련하고 신도증 소지자의 혜택 확대 차원에서 이뤄졌다. 포교원과 남양주 한양병원의 협약에 따라 종단 신도증을 소지하고 매년 교무금을 납부하는 신도가 병원을 이용할 시 △비급여항목 입원진료비 10% △외래진료비 20% △건강검진 시 본인부담금 20%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이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연계해 진행됨에 따라 봉선사 신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2면에 계속

G-20 정상회의

2010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영산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2010. 3. 11 (목) 오후 2시

주관 : 2010영산재 봉행위원회,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초대의 글



불, 법, 승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지절에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2010영산재’를 봉행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국제적인 회의이고 단군 이래 최고의 경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의창국 자격에서 주최국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운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태고종의 총본산 봉원사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관리하는 ‘영산재’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010영산재’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예술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법요이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전국신도회장
인사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새 봄을 맞이하는 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전국신도회장 유윤순’ 인사 올립니다.

부처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2010영산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우익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우뚝 서게 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운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서로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장 유윤순 합장